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頻頻한海難事件
―遭難、救濟의施設必要―

一

十九日 仁川을 떠나 瑞山으로가던 丸星所有船 海龍丸이 瑞山近海에서 遭難하야 乘客 四十一名中 二十七名은 無慘히도 魚腹에 葬事하고 남어지 十四名만이 生存하엿다함은 本紙의 報道한바와갓다。그 原因의 如何를 不拘하고 이런 遭難事件이 잇슬때마다 吾人은 悚然을 禁치 못하나니 人生이 한사람 輪禍를 當한다해도 社會問題가 되거늘 海上에서 數十名이 一時에 沒死하고 船體와 荷物을 全部 海中에 푸러 던짐에랴。吾人은 昨年 八尾島近海를 航行튼 某發動船의 遭難事件을 아즉도 記憶하고잇거니와 이 記憶이 사라지기도前에 어가튼 遭難事件이 다시西海岸에 이러낫슴은 一大不祥事가 아닐수업다。

二

今番 遭難事件의 原因은 아즉 判明치 아니햇스나 遞信當局의 말에 依하면 同發動船의 定員은 五十三名이오、搭載定量은 三十噸이라 하는데 今番 乘客은 汽船會社의 乘組員六名과아울러 四十一名이오 荷物도 二十二噸밧게 搭載치 안햇스므로 同社의 失手라고만은 생각할수업다。船體도 近間 修理한것이라하므로 船體의 故障으로도 생각되지 안는다。必是 濃霧로 因하야 方向을 일허 近海에 헤매다가 坐礁하야 沈沒하얏다는것이 事實인듯하다。그러므로 責任의 太半은 船長에게잇고 會社當局엔 적은듯 하다。그러나 不賢明한 船長을 왜 썻는가、그날 濃霧가 잇섯슬것을 몰랏거나、알면서도 何等 對策이 업시 떠나게한 會社當局의 責任은 또한 免치 못할것이라 밋는다。

三

그러나 吾人이 이런 事件이 잇슬때마다 痛切히 늣기는것은 海難事件에對한 豫防又는 避難、救濟施設의 적은것이다。萬一 處處에 適合한 霧笛 燈標 導標가 잇거나 暴風警報를 報하는 標識가 만헛다면 이런 遭難事件은 比較的 적을거요、設使、遭難한다하드래도 救濟施設이 充分하다면 犧牲을 적게하고 事件을 收拾할수잇슬것이다。그런데 現在朝鮮沿海에는 燈標、霧標、霧警報等 三百五十一밧게업스며 小汽船이 航行하는 沿海에는 比較的 設備가 적으며 避難所 救濟設備等은 極히 적다。勿論 過去의 朝鮮에 比하면 이만한 施設이 長足의 發達이라 할수잇지만 航行하는 船舶의 激增、通行하는 人物의 激增으로 보면 아즉 不足한 感이 不無하다。

四

勿論 海上 이라 人間의 知慧를 超越한 不可抗力의 天變地災가 업스리라 保證키는 困難하다。아무리 科學이 發達된 先進國家라 할지라도 저 히덴부르그號事件、메중號事件等 不測의 事件이 잇는것은 免치못할 事情이다。그러나 朝鮮처럼 遭難事件이 만흔곳도 드물지니 年年 船舶의 遭難事件만 三百餘件을 超過하는것을 보드래도 這間의 消息을 알수잇다。그러므로 今後 此等 施設을 더 擴張할 必要가 잇슴은 勿論、避難、遭難、救濟와 施設을 一層 新設 又는 擴充할것이다。

滕縣一戰에敗退한敵 徐州防禦線必死固守
日支兩軍大運河를끼고對峙 激烈한手榴彈戰演出
戰局은俄然 山東·江蘇省境으로移動

【上海二十二日發同盟】去十六、十七兩日에亘한津浦線滕縣城攻防戰은 支那軍이 徐州防備의 北方據點으로서 死守한만치 敵의 師團司令部가 全滅하기에至한 激烈한戰鬪이엿다 支那側이 報하는바에 依하면 日本軍이 巧妙한 作戰에依하야 支那軍의 右翼을 突破하엿기때문에 十六日午前八時에는 滕縣城은 日本軍의 重圍에陷入되야 城壁을 挾하고 手榴彈과 機關銃에依한 激戰이 展開되엿다 交戰約八時間餘後日沒頃 日本軍은 東關을占領하고 繼續하야 翌十七日午後三時에는 東方及 南方破壞口로부터 突擊하야와서 百二十二師長王銘章은 腹部에 機銃彈을 受하야 戰死하고 趙參謀長、王團長以下多數의 幕僚를 失하엿는데 兩次의 交戰에依한 支那軍의 損害는約三千에達하엿다한다 이리하야 滕縣의 一戰에 多大한 犧牲을 내이고 敗退한 敵은大運河南岸에 退却하고 徐州의 本防禦線에 머므러 必死的防戰에努力하고잇다 漢口來電에依하면 目下 同所에서 幅五十야ー드의 大運河에 서로對峙한 日支兩軍은 激烈한 手榴彈戰을 演하고잇다 韓莊으로부터 徐州까지 僅十餘里로 我津浦線南下部隊는 江蘇省에 追擊하기로되여 戰局은 俄然 山東、江蘇省境에옴겨젓다

英米佛人等으로 支那外人部隊改編
隊長에는米人슈미스트

【上海二十二日發同盟】漢口來電에依하면 中國航空委員會는 二十一日 外人航空部隊의 改編에 關하야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外人파이롯트八名으로 成立된 第十四爆擊隊는 支那空軍統一의 見地로보아 改組를 行하고 正式訓練을 受한者는 他部隊 或은敎官으로서 飛行學校에 配屬시킨다

그리고 第十四爆擊隊는 英、米、佛、加奈陀、伊人으로 成立되고 一米國人빈센트·슈미스트가 隊長으로 指揮를하고잇다 今次의 改組는 一週에依하야蘇聯部隊、外人部隊、支那人部隊三者가鼎立하야 內訌이 不絕하던 支那空軍의內部事情을 暴露한셈이다

中國維新政府(中支) 廿六日結成式擧行

【東京電話同盟】中支臨時政府結成에關하야는 그後 着着準備를 進行하고잇더니 겨우 諸般準備가 整備되엿스므로 마침내 來二十六日頃 南京에서 盛大히 結成式을擧行、中華民國維新政府의 看板을 揭하고 同時에 그態度方針을 中外에 宣明할豫定이다

故嚴俊源氏에 追賞의御吩咐

【東京電話同盟】畏하옵시게도 宮中에서는 京城府進明女高校長中樞院參議嚴俊源氏逝去에際하야 氏가 敎育의普及及 敎化事業에 盡瘁한功을 들으시옵시사 二十二日附로 嚴俊源氏에對하야 追賞의 御思召로 銀盃一個를 御下賜하옵신다는御吩咐가계시옵셧다

貴院電力案修正方針

【東京電話同盟】問題의 電力案에對한 審議方針을 決定할貴族院電力特別委員懇談會는 二十二日午前十時半開會되엿는데 硏究會多額議員의 反對其他錯綜한意見이 會內에對立되엿기때문에그態度를 決定치안코 白紙의態度로써 懇談會에 臨하엿스므로 同會는 卽時休憩로되고 그사이에 硏究會委員은 別室에 參集하야 여러가지 協議한結果 懇談會終了後同會獨自의 小委員을 設하고 修正案을 作成하기로 方針을 決定하엿다 따러 同懇談會는 十一時三十分再開되여 本案取扱에關하야 意見을交換한 結果 貴族院獨自의 修正案을 作成하기로 決定하엿다

伊使節團에御賜謁

【東京電話同盟】天皇陛下께옵서는 二十二日正午 防共의 盟邦伊太利帝國으로부터 日、伊親善의 使命을 帶하고 來朝한 팟시스트防日使節團長 파우리치侯以下一行十八名에 對하야 親히謁見을 吩咐하옵시고 또 盛大한 午餐會를 베프시엿다 이敦厚하옵신 御優遇에日伊兩國의 國交는 玆에一層光輝를 더하엿다 御召의光榮에 浴한 파우리치侯一行은 팟시스트制服을 正히하고 午前十一時四十分參內 東溜間에參進 天皇陛下께옵서는 御通常禮裝으로 出御 玉座가까이는 當日使節團으로부터 奉呈한 뭇솔리니 首相의 華麗한 獻上品이 노여잇고 松平式部長官 百武侍從長 侍立한가운데 파우리치侯等은 恭順히 御前에參進 陛下께옵서는 아우리치大使의 御紹介로團長파우리치侯에게 賜謁하옵신바 侯는伊太利國皇帝陛下로부터 使節差遣하신 御親書를 奉呈하고 來朝의御人事를 言上한다음 侯는 리베라博士를 비롯하야 一行十七名을順次로 御紹介하야 드리자 陛下께옵서는 一一히 謁見을 賜하옵시고 優渥하옵신 말슴을 下賜하옵셧다 다음에午後零時半 陛下께옵서는 豊明殿에出御 親臨 本元帥宮殿下께서도 御臨席 파우리치侯一行及아우리치大使도 召하옵시고 廣田外相 其他側近에게도 御陪食을吩咐하옵시사 日伊親善의感激한 가운데 御盛宴을 御終了 午後二時에 一行과함께茶菓를 召하옵시면서 暫時御歡談하옵시고午後二時頃 天機御麗히 入御하옵시엿다 使節團一行은 光榮에感激하고 宮城을 退下하엿다

一億留武器借欵
國共合作은兩黨平等的原則下 行政院各部長同數를條件으로
蘇聯、蔣政權間에成立

【香港二十日發電】二十日附漢口로이데電은最近莫斯科에 向한孫科와 蘇聯當局과의 사이에 武器借欵一億루불이 成立되엿다고 報道하엿는데 確聞하면 孫科가 莫斯科에 携行한 使命은 다음의 三個項이라한다

一、蘇支外交軍事協定締結―이는 이미 締結된 蘇支軍事同盟에 外蒙을 包含시키며 그內容을 一層緊密시키려는것이다

二、西北支那와 蘇聯을 聯絡하는鐵道及 自動車道路建設에關한 借欵交涉

三、武器及 飛行士供給派遣의限度決定

이에對하야 스탈린氏는 모든 同意를 與하엿는데 各項目에對하야 各其如左한 條件을 附하엿다한다 卽

(一)에對하야는 國共合作은兩黨이 完全히 平等關係에서行할것으로 따러 軍事委員會委員及、行政院各部長은 國共同數로할것 現在政府部內에잇는獨逸人顧問을 全部追放할것의 二條件을附하고

(二)에對하야는 建設에關한諸計劃을 決定키爲하야 蘇支外交共同委員會를 組織하야 그委員數는 十一名(支那側六名 蘇聯側四名 外蒙側一名)으로할것

(三)에 對해서는 供給武器彈藥의 半數를 共産軍에 支給할것 武器는 每月탕크十五臺、飛行機二十臺 大型機關銃六十五臺 其他小型武器若干

以上과가튼데 第一에對한 條件을 承認함은 目下 蔣介石으로는 絕對로 不可能함으로 結局蘇支外交의 軍事同盟은 成立不可能의事情에 잇고 第二第三은 一億루블借欵이 成立되여目下 着着 實行하고잇다고는하나 蘇聯共産黨側의 目標가 이로 極히 明瞭케되여 國民政府內의 國共의 軋轢及蘇聯支那間의 關係가 險調로나갈지極히 憂慮된다

大規模的東亞(又는對支)省設置立案을考究
內閣制度도이때문에改正考慮
首相(北支開發會社法案委員會)서言明

【東京電話同盟】政府는 支那事變이 新段階에 進展하야 中華民國臨時政府의 基礎가겨우 鞏固하게되고 또 中華民國維新政府가 誕生하려고 하는이때 綜合的大規模的 對支機關設立을 企圖하고잇든바 外交一元化의 方針으로부터 外務省의 反對에 遭遇되여 마침내 規模를 短縮하야 對支經濟事務局及 對支經濟審議會를 設置하기로 方針을 決定하엿더니 二十二日衆議院 北支開發會社法案委員會에서 近衛首相은 民政黨의 宮澤胤勇氏의 質問에 對하야 同機關은 臨時措置로 設置한것이나 對支問題處理上으로보아 東亞省 又는 對支省과가튼 大規模的綜合的機關이 必要한바 이때문에는 現行內閣制度를 根本的으로 改正하지 안흐면 아니될으로 政府로서도 愼重히 檢討를거듭하야 議會終了後 卽時 立案에 着手할터이다 라고 答하야 立案에 着手할것을 率直히 言明하야 中華民國臨時政府의 基礎確立을 기달리여 東亞省 又는 對支省設置에關한 重大한 示唆를 與하야 注目을 惹起하엿다

(寫眞은 近衛首相)

對支問題에關한 近衛首相言明內容

【東京電話同盟】二十二日午後衆議院 北支會社法案委員會에서近衛首相은 兩會社를 中心으로한 對支問題에關한 帝國政府의所見을 左와如히 言明하엿다

一、對支經濟文化의開發機關에關한問題인대 兩會社의 監督에는 內閣全體의 責任에서 이를行하고 主務大臣은 總理大臣이다 그리고 그 補助機關은 臨時部局으로서 內閣에 對支經濟事務局을 新設하기로하고 이에要하는 經費는 第三次追加豫算에 計上하엿다

一、對支問題全般에 亘한 中央機關에對하야 目下硏究中이나 政府로서는 아직具體案은업다 今後現地의狀況及、事態의推移를보면서 萬遺漏업기를期하려한다 勿論對支重要問題의 解決에는 內閣全般의 責任에서 하고잇다 또內閣參議가된것은 周知하는바이라고한다

一、東亞省又는 對支省의 設置論이잇스나 政府로서는 아직 具體案은업다 今後 硏究할問題라고思한다

一、現在는 作戰行動中이다 政府로서는 現地軍과 緊密한連絡을取하고 또新政權과 充分協力하야 行하여가려한다 勿論對支開發의 要諦는 共存共榮東洋平和의 確立에잇다

英國公使信任狀捧呈

【東京電話同盟】요전에 着任한 클리비아英國公使 안행아오로아氏는 二十二日午前十時에 宮中에 參內 鳳凰間에서 廣田外相侍立下에 天皇陛下께 謁見 信任狀을 捧呈하고 同十一時 宮中을 退出하엿다

鑛業朝鮮의氣焰
議會方面의朝鮮認識은徹底!
穗積殖産局長歸任談

政府委員으로 議會折衝과그他要務로하야 約二個月에 亘하야 上京中이든 穗積殖産局長은 二十二日 午後一時三十五分에 『아까쓰끼』로 歸京하엿는데 次와가티말한다

金鑛의 制度그他方面의 努力의 結果로 놀랄만큼 朝鮮에對한認識이 기퍼진은 事實이다 産金그他 重要鑛物生産에 對하야도 必要한資金은 얼마든지내울이니 朝鮮의 資源을活用해달라는것이 議會委員會의意見이엿다 이點보다 오히려責任이 重함을 痛感하엿다 産金會社는 十月一日까지에는 事務를 開始하기로되엿다 이會社를設立함은 政府의意案이엿스나 金山金融에關하야는 全然石田君(鑛山課長)의 發案이그대로 採用되엿스므로 石田君의功績은 크다 朝鮮側의 要望은거의 容認되엿스므로 豫定대로 七十五萬트를目標로支障이업도록 努力하여가지안흐면 아니된다 自信은充分히잇다 地質調查는 아직十分之一밧게 되지안코잇는데 鑛山課의 調查에서 이미 內地側이 朝鮮을信賴하게쯤되엿스므로 今後의鑛業朝鮮은 有望하다

金山課이라던가 物價調整課를 新設할것이아니나 事務가 金産關係事務를 加하야 한課中에서 全部事務을 할수업게된것은 事實이다 도리어오면 도 多忙하다 東京에잇는이들도 夜半까지 事務를보고잇다 鮮內事業도 一個月이나 留寄하여잇섯스므로 잘 硏究하려다 無水酒精工業問題는 그리 걱정할것이아니다 다른事業도 適地適才으로 行할려이다 業者가 採算을생각하는것도 無理는아니다 液化事業도 해하여갈것이다 北支開發會社는 任務에 압서업스나 航路의 重要性은 認定되여잇다 여러가지 法律案이 通過하는데 朝鮮에 適用할것이여 필지생각하지안흐면 아니된나 重要鑛物增産法과가티 卽時行하지안흐면 아니될것 內地보다 準備이遲延되엿기때문에 實施할必要가 잇슬것等여러가지이나 時局에依한統制法規等은 準備이다르더라도行하지안흐면 아니될것이라한다 産金會社人의 風說은만히 事實의 廣告를 가지고잇스므로 너무만허 걱정이다 衆議院에서는 官吏의 民間會社入의反對決議를하고잇지안흔가

電力案圍繞코 會期延長은必至

【東京電話同盟】貴族院은 電力管理案의 審議에 關하야 二十二日午前 午後에亘하야 關係特別委員의 懇談會를 開한結果 各派委員이 意見을 提出하야 容易하게 一致되지못하엿기때문에 二十三日午前十時 다시開會하게되엿는데 現在의情勢로보면 二十三日中에最終意見을 내리는 것은 相當히 困難한 模樣으로 二十四日에도 行할것이 아닌가 觀測되므로 從來同案의 審議促進에 努力하여온 兒玉委員長도 이以上 억지로 促進하려고하면 오히려 委員의 感情을 刺戟하야 空氣를 惡化시킬 念慮가 잇다하야 그推移에맡길 方針인듯하다 따러 政府가 本案의 成立을 斷念치안는以上 會期延長은 必至形勢로되엿다

同委員會는 午後一時 再開하야 各條項에 對하야 逐條的審議를進行하고 不備한點에修正을行하기로되엿다 따라 電力案은 마침내 兩院協議會에 옴기기로 決定되엿스므로 會期延長問題에關連하야 貴族院修正은 자못重視되게되엿다

裵莊敵軍潰走

【彰德二十一日發同盟】十九日午後 我〇〇部隊는 裵莊(湯陰東南方附近에 出沒하는 敵敗殘兵約六千을 攻擊하야 敵은頑強히 抵抗하엿스나 約三時間에 亘한 猛烈한戰鬪의 後에 마침내 이를擊退하야 敵은多數의死體를遺棄하고潰走하엿다

獨墺合邦等으로 北歐四個國會議開催

【오슬로二十日發同盟】瑞典、諾威、丁抹、芬蘭의 北歐四個國外相은 來四月一日과六日의二日에亘하야 오슬로府에參集하야 定例外相會議를 開催하기로 되엿다 會議는 去番의 獨墺合邦과 最近의 波蘭、리투니아 紛爭解決에件한情勢에 關聯하야 四國共通의 問題를 討議할것으로觀測된다

政民委員 西尾氏除名決定

【東京電話同盟】社大黨西尾氏懲罰問題에 關하야 二十二日午後一時부터 院內議長應接室에 民政黨小泉幹事長 平川松太郎、長井源兩懲罰委員 政友會 砂田幹事長代理名川侃市氏 紅露昭兩懲罰委員六氏會合協議한結果 懲罰委員會全體의 強硬意向을 反映하야 西尾氏를 除名하기로決定하엿다 그手續으로서는 同委員會의討議에드러가기前에 西尾氏에게最後의自決을勸告하야 西尾가 此에不應할時는除名決議를하기로되엿다

本社參觀

▲平南大同郡南串公立普通學校生徒四十名 李相廷氏引率下本社參觀

▲平安北道定州郡邑面長 視察團員十四名 高慶律氏引率下本社參觀

人事·集會

▲中山太一氏(大阪商工會議所副會頭)二十二日 飛行機로入京 朝鮮호텔一泊後 北支方面向發豫定

夕刊後市況 廿二日

◆各地 期米 後止◆

	當限	中限	先限
大邱	三三·〇七	—	三三·三九
釜山	—	—	三三·八六
群山	—	三三·三九	三三·〇六
太浦	—	—	三三·三六
下關	—	—	三五·三三
名古	—	—	三五·三三

◆大阪 棉花 後引◆ 當限 — 先限 五八〇五

◆大阪 人絹 後引◆ 當限 七四五〇 先限 七八三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七四二〇 先限 七八〇〇

◆橫濱 生糸 後引◆ 當限 七〇六〇〇 先限 七二四〇〇

誌界の最高峰 中央公論 四月特別奉仕號 特價壹円

特別附錄
世界の輿論を震撼しつゝある問題の二快著
★フレドリツク·ノーマン 英國を警戒せよ
極東問題に於いても英國は如何に米國を犧牲として自國の國際的地位の維持に狂奔しつゝあるか。英國の秘密室を暴いた快著!
★クインシー·ハウ 住みよき世界
烈々たる熱情を以て東洋平和の再建を詳細に比較したその明快なる論旨は、日支事變解決策への一つの偉大なる示唆であらう!

國內政治の諸問題
時務の本質と革新の動向……蠟山政道
總動員法案論戰を評す……中野登美雄
政府と政黨……馬場恒吾
現代政治の日本的性格……內田繁隆
擧國一致內閣と新黨運動……野村重太郎

極東を繞る國際情勢
英國外交の極東への志向……岡本鶴松
米國の經濟恐慌とわが物價問題……根津知好
ソ聯極東政策の積極的動向……竹尾弌
世界危機の一環としての極東……木下半治

蔣介石はもう參つてる 山上正義
國共合作の現實暴露……橫田實
新民主義と日支關係の更新……藤澤親雄
日本民族性の特徵 西村眞次·東洋思想の科學性 秋澤修二·ナチス景氣政策の榮譽·英國は戰へるか·日本の宣傳と使節 伊藤正德·帝國大學の問題 關口泰·戰時學界風景·學生に贈る書·インカの遺跡を訪ねて

余が半生を語る 野口遵

新吉·三宅正太郎、彌生畫記·內田百間、蚊と鬪ふ人々·安田德太郎、文壇的自叙傳·正宗白鳥、市井雜記·谷口喜作、將來の日本的·日夏耿之介、春信·村上知行、蛸山先生の散步·野上豐一郎、倭寇記·竹越與三郎、無想庵の惱み·武林無想庵、文學に於ける虛構と眞實·窪川鶴次郎、原敬·原奎一郎

巴里の戰慄 ドオデ事件 富田幸

上海·南京·香港·攻防(村田孜郎)、常識·知識·良識·清水幾太郎、街の人物評論(大倉喜七郎、安部磯雄、德川夢聲、眞鍋嘉一郎)、劇團はどうして進むか·村山知義、ダンヌンツイオと愛國文學者·杉山平助、仁義風土記·佐藤、「綴方教室」風景·(文)豐田正子(繪)松山文雄、獨逸の株式取引·黑田、ヴオロシーロフ將軍·三島康夫、余が世界革命政策·スターリン、桃介さんの思ひ出·松永安左衛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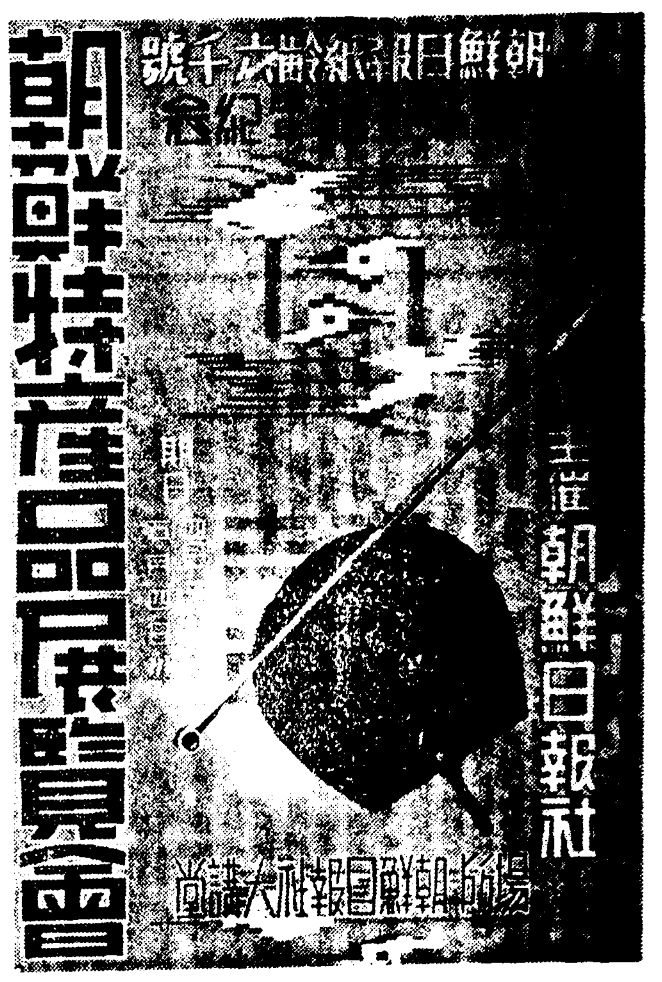
(小說) 女中のはなし 永井荷風
(小說) 末法時論 井伏鱒二
(小說) 道化芝居 北條民雄
北條民雄氏は癩者獨自の境地を拓いて不滅の地位を築いたが、惜しくも永逝した。本篇はその最後の大作である。

四月は特別奉仕號 ですから、お早く御註文下さい
本月は特に賣切のおそれあり 即日お求めを!!

東京丸ビル 中央公論社發行

鄕土의名譽를걸고 珍品異貨가輻輳!

直接本社로、各道產業課經由 出品마감은三月末日



백회가 만합사월이십오일 본사혁신오주년일을기하야 본사에서 열렬「조선특산품전람회」는 한번개회이 발표되자 반향은각방면으로 비상히큰바잇서 벌써부러 열흘동안의회는 예상파그로 수회이잇슬것이 거대되고잇다 본전람회가 어방특산품으로 시장에 등장한것은물론 아직 널리소개되지못한것에대하야 일흥그소개와 선전에 힘을써서 조선특산품의 성가를 올리며 또조선산업의 발전향상을목표함에 경향의 업자들이다투어 출품코저 개인파단체를마롭하고 열의를다하고잇서 이미본사로출품신청을조회하는것도 만헛거니와 또출품의 종목을 정선하기위하야 각도산업과에 협력을청하엿더니 각도당국의 응원이 일층각별하야 쉬운도향토의 명예를지고 나올물품은 벌써회장에 벌치령면예어잇다 그동안출품신청인서는 본사로 직접드러오는것과、각도산업과를 경유하여드러오는것이 벌써꼬리를물고잇도하야 지금부터 일부는정리중에잇는데 신청서의마감은 금사월이일까지이므로 출품할분은 기일전으로 하로빨리 제출하여주어야 조흘것이다

(커트 사진은 특산품 전람회포스터)

航空施設에脣齒格 氣象網을大擴充

航空機製作所도積極助長 空界로의大飛躍陣

금년부터 삼개년계속사업으로 조선의 항공(航空)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야 만주(滿洲)、북지(北支)에정치、경제、산업등 각방면을 망라하야 급속도의개발을 도모하기로되엇다함은 이미 루보한바어니와 이와가티항공시설의확장정비에는 무엇보다도 기상(氣象)통보의완비를 가장만족하지안흐면 그완전(完全)을 도모하기어려우므로 총독부에서는 금년부터 역시삼개년계속사업으로 이백이만원의 거대한예산을가지고(금년에구십만원)조선의 기상통보망을 완비하야 항공시설확장에 대비하기로되엇다

그리고 도이현하시국에 정치경제산업 어느것을물론하고 시급을요하는 어항공시설확장에원항공시설을도모함에는 비행기제작소를설치함필요가 절실함에느끼바잇서 지난번 남총독(南總督)은 신용욱(愼鏞頊)비행사에게이것을강조하는동시에 장래그계획을진행시키겟다고 언명한바잇섯다

원래조선은 내지에비하야는 물론 만주、북지에비하야도 항공시설이여지업시 뒤떠러저서 만주 북지의개발에리용하는것은고사하고 조선내의 교통、산업개발에도 조금도리용할만한 시설이업다 이에대하야 총독부당국의조사에의하면 첫재조선에는항공로에 필요불가결의 기상통보시설이부족하기때문에 민간에서 항공사업을 계획하고시퍼도 특히 기류(氣流)의변동이 욱심한 조선이라 엇지할도리가 업고또하나는 조선은항공사업에 대한 편념이박약한동시에 항공기제작기관이 업스므로기업에극히만흔 불편이따르는관계라고한다 이와가티빈약한 조선항공계를 한번 놀랄만치융성발달식히랴는 공사기관을흥분하고 적극장려조장할 이절대필요하다하야 총독부에서는이상파가티 관설사업을하기전으로시설하는 동시에 민간계회대로적극적원조를 하기로되엿다

志願兵志願者 三千六百十九人

普校卒業者가三千百六十七名 職業은農業이最多

지난이월이십이일 칙령(勅令)으로공포된 륙군특별지원병령(陸軍特別志願兵令)은 오는사월삼일부터 시행하는동시 지원수속을사월십일까지 마치기로 되엿거니와 지난십일현재 각도지원자의 총수는 삼천륙백십구명으로 학력으로는중등학교졸업자 오십일명과 초등학교졸업자 삼천일백륙십칠명(금년재학생원은사백명) 외에 중도퇴학자이며 이중에서 서당(書堂)출신 사십삼명과 무학자십이명이잇다 그리고 직업별로보면 전부십일종의 직업으로 나누어잇는데 농업이천일백구십명이 최고위를 점령하엿고 그다음에는 점원사백사십구명으로 회사원십구명이 최저수자이다 그리고 도지원병을 지원한동기로보면 애국심에서 출발된지원자가 이천삼백칠십명이요 순전히 적어저으로 지원한자가팔백십이명이다 그리고 그나머지 사백팔십구명은 무두 동기가분명치못하다

이제 이것을 다시학력별 또는 직업별로 상세히들면 다음과갓다

◇學力別

▲中等卒五一 ▲中等中途退九九人▲初等卒三、一六七人▲初等中途退一七三人▲講堂出身四三人▲無學一二人▲不明七三人=▲計三、六一九人

◇職業別

▲店員四四九人▲傭人三五三人▲職工二○二人▲農業二、一九○人▲商業一四五人▲勞働七○人▲會社員一九人▲事務員九五人▲給仕三二四人▲運轉手四四人▲學生一二七人▲其他二八四人=計三、六一九人

電車自動車衝突

이십이일 오전여섯시사십오분경에 서내한강통(漢江通)삼번지의십일호 킹그택시-에잇는 자동차조수 안원성(安元成)(二二)은 차고에서 경구천이백이십일호자동차를운전하고 나오자 경성역방면에서 노량진행전차 경일백이십이호와 충돌되여 다행히인명에는 판계가업스나 자동차에손해오십원가량을 이피고 전차에손해삼십원가량의 피해를입혓다고한다

花信은春雨를타고

海龍丸慘變 船長은救助

【二十一日午後警務局着電】 발동선해룡환(海龍丸)이 인천(仁川)을 출범하야 서산군구도(瑞山郡鷂島)로 향하든도중 서산군 황금산도(黃金山島) 근해에서바위에 부듸처 파선된사건은 그후다시경무국에 상세한보고가드러왓는데 이에의하면 그날통선에 탓든선객은 선장이하승조원 륙명을 합하야 전부사십일명인데 그중에 십사명은 구조되엇고 이십오명은 아직까지 행방불명、어의에서시체두개가 발견되엇다 그리고 전기사십일명가운대 승조원 륙명중에는 선장하나만 구조되엇고 나머지오명은 역시 행방불명이다 이급보를접한 충청남도 경찰부에서는 보안과장이 현장에 급행하야 소관서산경찰서장이하 서원을지휘하야 조난자수사에 진력하는중인데 이십이일에는 잠수부를출동시켜서 소해(掃海)작업을 시작하기로되엿다

電氣工士人氣 募集定員八倍

체신국에서는 오는 사월부터전기 기술원의 양성기관인 전기공사양성소(電氣工士養成所)를개설하기로되야 그동안 생도를모집중이든바 이십일에 그입학원서를 마감하엿는데

응모자는 륙백일곱명에 달하야 모집정원칠십오명에 대하야 팔배나 되는디수에 달하엿다한다

이것은 전기기술원이 현재조선에서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한가지증거로 볼수잇서서 이기관의 창설은 자못 시기에 적당한것이라한다 입학시험은 경성 평양 대구 신의주 함흥 전주등 여섯곳에서 오는이십륙일 이십칠일 이틀동안에 시행하기로 되엿다한다

機關車助手殉職

이십일일 오후 십시삼십분경 용산역(龍山驛)구내 용산역남부 신호소(信號所)부근에서 화물차 연결작업중 기관차조수 이주봉(二一)은연결 화물차의 상태를 조사하려고기관차우에서 발디딤을 잘못하고내려오는바 때마침 부산방면에서 제구열차가 돌진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푸부지할사이업시 그자리에 쓰러지엿스므로 즉시 용산철도병원(鐵道病院)에 입원시키고 응급수당을 가하엿스나 동십시오십분경에 드디어 사망하고말엇다고한다

좀도적

주소가 일정치못한 지정오(二□)은 지난이월이십일에 부내 어성정(御成町)소옥어관에 들어가서 구두한켤레를 훔친것을비롯하야 남산정(南山町)、명치정(明治町)등지의 여관과 요리집을전문으로 전후열여섯번이나 구두 시계등을 훔치다가 전당잡히러가 발각되야 방금서대문경찰서에서 엄중한취조를 밧는중이라 한다

京城府會第六日

下水道改修費의僅少를擧例 下水道의改修와 惡路清掃를力說

경성부회 제륙일은 이십이일 오후두시부터 속개되엿는데 그전회에서 강영호(姜永晧)의원으로부터 질문한 도시계획의측량(測量)문제에 관련하야 면면의원의 질문파 답변이잇슨후양재창(梁在昶)의원이 부내의 하수개수(下水改修)는 부민의보건위생파 교통상 큰문제인데 방대한 토목예산중 하수개수비는이만오천원의 소액이다 구부내는 물론 새로편입된 지역에는 이 하수도개수를 적극적으로 촉성하지안는나고 질문하고 이에따라 김태집(金泰集)、강용표(姜容杓)의원등이 역시 하수도개수와 진흙바다를 이루어잇는부내 역도로의개수를 역설하엿다

日產灰山鑛山에 重油탕크가爆發

人畜無害、損害十萬圓

【警務局着電】 이십이일 오후두시에 함북경흥군회산(慶興郡灰山)에잇는 일산화학회사(日產化學會社)의 간조공장(乾燥工場)의 중유탕크(重油槽)가별안간에 폭발하야 그부근 일정이내의 지역에잇는 가옥들의 유리창은전부 부서지고 진동하는소리가회산지내일대에 퍼저서 큰소동을 이르켯다 다행이 사람은 상하지안햇스며 손해는 십만원가량이라한다

그탕크는 일주일전에 설치하야 쌔웟는데 「탕크」안에 「까스」와 공기가 꽉차서 전압(電壓)을 시험하든중에 불똥이 떠러저 불이부터서 폭발된것인듯하다한다

營口丸火災

【營口浦鹽電話】 근해우선(近海郵船) 영구환(營口丸)=一八五○톤)은이십이일오전네시 태고(太沽)부두 근해상에서 돌째선창으로부터 불이이러나 소화에노력중인데 인명거리에는 아무런이상이 업다한다

安東縣에大火

【安東縣】 십구일오전다섯시반에 시내 상천단정(上川端町)만두장사리덕정(李德正)(三□)집에서불이 낫는데 불길은 점점퍼지여 린접한 리발소와 주택사호를 전소하고 여섯시반에 진화하엿는바 손해는약사천원이라하며 원인은 불을과도히 때인관계이라는바 전기리덕정집 이층에자고잇든만주인 한명은 깁히잠들어 깨지못하고무참히타죽엇다고한다

未成年禁酒禁煙法 四月一日부터實施

法効만밝힐때는弊害가莫大할것으로 道德的自制를期待

그동안법제국(法制局)에서 심의중이든 조선의 미성년자금주금연법실시의 칙령안(勅令案)은 일전에 심의가 끗낫스므로 금이십이일 각의(閣議)로돌은 오는 이십구일 각의에서 정식으로결정하야 사월일일부터 정식으로 발표실시할터인데 이법령은 현재내지에서 실시하는것을 조선에도 적용실시하는 칙령안이다 이법령이 내지에서도 실시이후 하등의 실적을올리지못하고잇는 그만치 극히 비효과적인데 조선에서 처음으로 이것을 실시함에는 여러가지로 주목되는바 되는것이다

하여간이것은 법령으로 제재하는것보다는 도덕적자제(自制)가 필요하므로 이법령의 운용에는 취급편리의 기픈 주의가 잇지안흐면 공연한 전과자만내는동시에 사회도덕상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게되는것이다

新聞紙뭉치로 二千餘圓詐取

기보=임마전 본정서(本町署)유형사(劉刑事)가황금정(黃金町)사거리에서체포한 사기도박단의 일당 자경북(慶北)출생 전과이범 전치운(田致雲)은 그가구류기간을마치고 이십이일 도박사건이잇슨 동대문서로 넘긴는데이동리랑 다섯명은 사기도박외작년사월이십오일 청량리역(淸凉里驛)에서 함남안변군위익면(安邊郡衛益面)사는 최원산(崔源山)의외명에게서 그들이미리 준비하여가지고갓든 신문지뭉치로 이천여원을 사취한사건도잇다고한다

拳銃과實彈盜難

龍山署에서唐慌、犯人을猛搜查

서내원정(元町)일정목이십륙번지 풍강구랑(豊岡九郎)씨집에는 이십이일오전에 집안식구가 외출한틈을 타서 오전십일시십분부터 오후세시사이에 어느자의 소위인지 뒷문으로 담을넘어들어와서 현관(玄關)의 유리창문을 줄로 베여내고 실내에 침입하야 옷장속 서랍속자에 넘두엇든 백이의(白耳義)에서 맨든 「모젤 에아-드」식오연발권총중 한자루와 실탄이십발을 훔처가지고 갓다 하고 즉시 소관룡산서에 신고하여왓스므로 동서에서는 때가때인만큼 고가(高家)사법주임이하형사대가 총출동하야 범인을 엄탐중이라고한다

伊太利使節團 來廿三日入京

내지를 려방중인 이태리 파시스트 방일사절단(訪日使節團) 일행은 사월십칠일 부산을상륙하야 조선으로 건너올예정이엇스나 일정을변경하야 사월이십삼일 조선으로와서 경성에 일박하고 이십사일발 만주로 향하기로 된것을 외무성으로부터 총독부에 통달이잇섯다

黑心漢의 숫도적

대낫에 숫도적——이십이일오후세시에 부내래천정일백륙십삼번지 숫장사 강덕석(姜德石)씨의 상점에는 주인이업는틈에 그집 심부름꾼이것처분인 어십오세가량된 남자한명이 그이웃집 사는 강원식(姜元植)이라는 로동자를 시켜서 숫열가마니를 소구루마에 실러가지고 부내명치정(明治町)이정목칠십팔번지 삼촌길웅(三村吉雄)씨의집에 가서 돈지폐원을 밧고 팔아가지고 어데론지 도망해버렷다한다 서대문경찰서에서는 이신고를밧고 각처로그범인을 찻는중이다

石川縣에大火 百卅三戶燒失

【金澤電話同盟】 이십이일 오전두시경에 석천현우작군서포촌자적기(石川縣羽咋郡西浦村字赤崎)에 큰불이일어나 오전다섯시경에 겨우진화하얏는데 현보안과에달한 보고에의하면 가옥삼십이호헛간오십팔호 웅치사십일호 어업조합 양잠조합 건물각일호 합계백삼십삼동을 전반소하얏다 원인과손해는방금조사중이다

前科六犯 또다시鐵窓에

【釜山】 전과륙범의 절도상습자 두명이 형무소에서 출옥한지사흘이못되어 또 철창신세를지게된 사건이잇다 경북영풍군의산면(義山面)출생 전과륙범 리점룡(李點用)(三二)과 황해도황주읍(黃海道黃州邑)출생 전과륙범 리영암(李永岩)(二□)등 두명은 수년전부터 부산부내에서 절도하다가 경찰에 검거되여 전과륙범이란 반가지안흔 직함을 붓게되엇는데 지난십오일에 부산형무소를 나온후 부내역전、상순려관(相順旅館)에 투숙하고 두명이공모한후 절도를하고자 삼렴헌당에 부내대창정(大倉町)산상모(山上某)집에 침입하야 구두두켜레를 절취하고 어여 그이웃에잇는 모카페에침입하야 절도를하려다가 때마침순찰중의부산경찰서원에게 발각되여 검거되엿다고한다

永興에山火

【咸興】 봄은 산불시절-십팔일 오후 두시반 영흥군덕흥면 할몽리(永興郡德興面鷹峰里)사유림안에서 불이이러낫는데 때마침 부는서풍을마저서 화염은 충천할듯 맹열히붓고잇다 벌써 사십여정보나 소실되얏슬것으로 보이며 십구일오전여덟시까지도 연소중이라고한다

奉天驛에 또强盜

五百圓을奪去

【奉天】 요지음 봉천시내는강도 살인 절도등이 꼬리를 물고이러나 매우소란한가운데잇는바 또 지난십구일 오후두시쯤되여 봉천성내(奉天城內) 길순창(吉順昌)정원 현금오백원을 가지고 못사람이 북적거리는 봉천역(奉天驛)에 와서 오백원을 세어가지고 화물개로 화물을 차지러가려든 찰나에 돌연 어떤괴한한명이 전기 정원의 오백원든 지갑을 강탈하여가지고 정원이 라고온 자전거까지 훔처타고 도망을 하여버리엿는데 이보고를접한 소관대화서(大和署)에는범인을엄탐중이다

棄兒

십팔일오후팔시경에 시내창천정(倉前町) 삼백칠십번지 한공옥(韓公玉)의 집아페 생후삼개월가량되여보이는 어린애가 버리여잇스므로주인이 곳소관서에 신고하여 왓스므로 범인을 엄탐중이라는데 생활에 곤난하여 버린것인듯십다고한다

今日의運動

◇럭비=朝鮮럭비-協會主催 春季戰第九日 蹴正高普對鐵道局 第二回戰 午後四時半 龍山鐵道球場(鐵道局主催)

中學에서大學까지 獨學으로

早稻田大學 講義錄의

國家의躍進에따라 國民全體의知識向上이 切實이要望되는 今日・小學校만을마친 諸君은 中等程度에서 大學程度까지 獨學으로 누구라도修學할수잇는 本大學의講義錄으로 速히修學하기切望한다。詳細는內容見本으로說明함 希望하는이는講義錄을記入申込하라 卽時送呈함。

早稻田大學出版部 東京・牛込 振替東京一一二三 電話牛込三四五

中學校程度	
中學講義	月一圓・前後期各一年
商業講義	一學月一圓 一年半修了
高等女學講義	一學月一圓 一年半修了
電氣工學豫備講義	一學月一圓 一ケ年修了

專門學校程度	
政治經濟講義	一月一圓卅錢 一年半修了
法律講義	一月一圓廿錢 一年半修了
文學講義	一月一圓廿錢 一年半修了
建築講義	一月一圓卅錢 一年半修了
電氣工學講義	一月一圓卅錢 一年半修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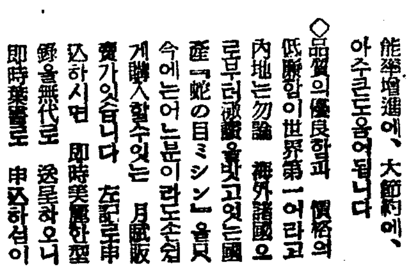
世界一 品質の良い！ 値段の安い！

蛇の目ミシン은…… 只今이살때입니다！

◇日常의家庭生活에 매우 이잇고 여유잇는것은 能率的으로나 經濟的으로나 顯著한 效果가잇는것입니다 미싱만잇스면 衣服의製作改作等의 裁縫은무부터 趣味豊富한미싱手藝 刺繡等이 滋味잇게잠깐동안에될수잇서 家事의 能率增進에、大節約에、아주큰도움이됩니다

◇品質의優良함과 價格의低廉함이 世界第一이라고 內地는勿論 海外諸國으로부터 激賞을밧고잇는 國產『蛇の目ミシン』을 只今에는어느분이라도손쉽게 購入할수잇는 月賦販賣가잇습니다 左記로申込하시면 目錄을無代로 送呈하오니 卽時葉書로 申込하시면 便宜할까합니다

資本金參百萬圓 帝國ミシン株式會社 朝鮮總中央店 京城府本町二丁目八十五 電話 本局 三四四七番 振替 京 一八二九五番



直營 分店 七十餘所

◇全鮮主要地七十餘個所에는이미直營分店이開設되고 또各地에店舖開設中입니다 長期間月賦로絶對로品質을保證하니 다蛇の目ミシン은 直營分店以外에서는販賣치안습니다

國產 蛇の目ミシンの月賦

스포-츠

京仁驛傳競走
—出場諸팀의陣容—

朝鮮陸上競技協會主催의 第六回 京城·仁川間 往復驛傳競走大會는 來四月三日午前十時正刻에 總督府前廣場을 出發點으로 京仁街道往復五十一里(八十三키로)코-스에서 擧行할터인데 當日出戰할 各團體의 『멤버-』는 다음과가티 六十名이다 開城팀은 『멤버』가未着하엿스므로 追後發表하기로되엿다(各팀選手氏名우에 數字는 各區間走者를表示 하는것으로서 1은總督府出發點…梧柳洞、2는 梧柳洞…富平、3은 富平…上仁川、4는 上仁川…富平、5는 富平…梧柳洞、6은梧柳洞…總督府決勝點이다)

◇遞信局
▲監督=丹生正 ▲主將=萩野
1湯天宰 2朴文浩 3李振奭 4閔泳星 5張寬淳 6柳長春【補缺】朝倉、佐藤

◇平壤陸上
▲監督=金鎭河 ▲主將=文允善
1洪庚杓 2李基浩 3白享福 4尹泳學 5李龍洙 6李泳煥【補缺】金德寶、文允善

◇平壤俱樂部
▲監督=梁成八 ▲主將=金俊根
1金龍得 2金根煥 3金寶燮 4孫明善 5徐昌秀 6梁成八【補缺】金俊根、金德寶

◇仁川體育會
▲監督=柳昌浩 ▲主將=崔昌鎬
1松川 2金大成 3玄正孝 4池元奎 5李宇善 6梁在元【補缺】李 瑛 金廷甲

◇白馬陸俱
▲監督=金昌善 ▲主將=徐尙善
1金國培 2方蘭奉 3金三成 4金榮培 5梁斗喆 6朴判用【補缺】張完興 崔甲成

◇鐵道局
▲監督=網干宗一 ▲主將=宮田
1李民相 2崔俊根 3陳圭寬 4金龍均 5中村 6吳東祐【補缺】[illegible]

◇培材高普
▲監督=崔仁浩 ▲主將=李達熙
1吳昌濟 2李鍾錫 3白昌鶴 4金鳳準 5池永龍 6劉寬興【補缺】[illegible]

◇白光陸上A組
▲監督=鄭範錫 ▲主將=鄭濟吉
1[illegible] 2金[illegible]仁 3李康明 4吳金榮 5崔命龍 6李昌洙【補缺】閔丙傑 孫允奎

◇白光陸上B組
▲監督=林炳輝 ▲主將=潘胤煥
1金鍾權 2李敬鍾 3金在德 4玄澤誠 5諸東熙 6金爾淳

◇養正高普
▲監督=徐雄成 ▲主將=李景羲
1李永淳 2李南周 3崔容杰 4金春亨 5許爾淳 6安鳳珍【補缺】李景羲

레스링講習會盛況裡에開始

中央基督敎靑年會體育部主催와 本社運動部後援의 第一回레스링講習會는 豫定과가티지난二十一日午後七時三十分부터 鐘路靑年會柔道場(場所變更)에서 열리엇는바 具滋玉氏의 開會辭가잇섯고 張權氏로부터 講師金鍾興選手와補佐役으로 來京한 明大의켈터-級選手金玉圭君을 紹介한後 레스링의準備運動과 競技法等의實際를 南記兩選手가示範하야 滿堂觀衆에게 기픈認識을 주엇다 當夜의參加者는 다음과가트며 昨二十二日부터는 午後四時半에 同柔道場에서 繼續擧行하기로되엿다

柳瑞吉 金元鎬 韓相奎 朴昌敏 金昌奎 李源重 朴楠淳 金生洞 朴東昱 姜玉龍 李熙元 金煥洙 (寫眞은 同講習會光景)

朝鮮體協의豫算 一萬九千圓으로
今年度事業案決定

朝鮮體育協會의今年度總會는지난十九日總督府에서開催한바 昭和十三年度 豫算一萬九千五百二十九圓(前年에比하야 約六千圓의增加)을附議決定하고 事業計畫에對하야 協議한바잇섯는데 計畫의內容은 大略다음과가티다

一、國民保健運動(라디오體操其他)의普及
一、各스포-츠의調査研究
一、體位向上思想의 普及을위하야講習會 講演會等을開催
一、運動競技에잇서서 優勝者及功績者의表彰

그리고 明治神宮競技會에 出戰하는朝鮮代表選手派遣費는 從來에는 一般으로부터 寄附를바덧스나 十三年度부터는 國庫補助二千九百四十圓을 支出하기로되엿다

選手給料補償과 興奮劑使用禁止

【카이로十八日發同盟】十八日國際올림픽委員會(IOC)는 다음의諸項을 可決하엿다

一、選手는 特殊한 興奮劑의使用을禁止할것
二、選手의 資格決定規約을 嚴重히 遵守하기위하야 一九三〇年伯林에서 可決된 原則에 順從할것과 따라서 大會參加를위하야 생기는 參加者의給料損失을補償함은不得함 但競技參加者가 家族의唯一의 扶養者인때는個人的 事情을調査한後 其妻또는 父母에 對하야 賠償할수잇다

以上의 事項外에도 IOC最高機關은 競技者로부터의 正當히 選出된 決定을 實行하야 大會와 스포-츠一般의 威信을 損傷하는것과 가튼事件이 發生치안토록 注意하는바잇섯다한다

敎鞭生活을一擲 體育指導에全力
徐相天氏의活躍

一九四〇年東京올림픽力道(重量擧)에 七名의候補選手를 門下에서내인朝鮮力道界의大先輩徐相天氏는 오래동안府內徽文高普에서 體操時間의敎鞭을잡으면서남어지時間으로 同僚李圭鉉氏와合께 中央體育研究所를 만들어力道指導에 盡瘁하야 오든바 從來同研究所의 擴充計畫을세우고 活動하든結果그計畫을 具現함에는 敎鞭을놋코잇슬수업서서 新學期를期하야 十有餘年의 敎鞭生活을 버리고 全力을 體育研究所에바처 力道는 勿論一般靑年의 體育指導에 邁進하기로 되엿스므로 同氏의 今後活動은 靑年의 體位向上이 緊急重大問題가 되여잇는 今日에 多大한 期待와 注目을 갓게한다 同氏의 後任으로는 咸興永生高普體操敎員으로잇는 白龍燮氏가 決定되엿다한다(寫眞은徐相天氏)

그라이더-競技場問題

國際올림픽委員會에서 國際航空聯合會(FAI)로부터提案된 『그라이더-競技』의 參加案을IOC카이로總會第六回會議에서올림픽種目으로 正式決定되엿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이에關하야 日本航空界의 統制團體인帝國飛行協會에서는 아직東京大會組織委員會로부터의 通告는업스나開催에關한 重要問題로 觀測되는것은 다음의五項目이라고한다

一、올림픽競技種目의決定
二、아마튜어規定의確立
三、審判方法의決定
四、競技場問題
五、日本選手强化策의確立

그리고 아마튜어規則制定에 關하야 FAI의 見解는 相當히 嚴重한 모양이나 日本으로서는 學生選手가 出場하면 滿足하게되여 남은問題는 오히려競技場의 選定이라고한다

米國은打擊甚大 會期變更으로

【카이로十八日發同盟】東京大會會期八月案을 固執하야 孤軍奮鬪한끄테 決戰投票에 敗退한 米國代表 『부란데-지』委員은 十八日 『카이로』 東京에서 記者에 對하야 其苦衷을다음과가티말하엿다

東京大會가 九月下旬에 開催되기로 會期가 延期되면 對하야서는 學生選手를 大多數로 抱擁하고잇는 米國으로서는 크나큰 打擊이라할수잇다 現在 米國競技界의 中心勢力을 짓고잇는 學生選手의 參加는 大部分減少될터이나 米國은 이問題에 關하야 明年倫敦에서 열리는 第三十六回IOC總會에 對하야 다시금 會期의 變更提案을 行하는것은 거의업슬것으로 밋는다

延專兩올림픽候補 昨日、京城發渡東

延專의 張利鎭、李容馥、金應鎬、金程信四選手가 올림픽蹴球候補合宿練習에 參與코저 渡東한다함은 昨報한바어니와 張、李兩君만이 豫定대로 二十二日午後四時十五分 京城驛發列車로出發하고 金應鎬、金程信兩君은 事情으로 數日後에 渡東할터이라한다(寫眞右는 張利鎭君 左는李容馥君)

昨年度卓球順位

朝鮮卓球協會에서는 昭和十二年度의 朝鮮卓球選手 『랭킹』을 다음과가티 決定發表하엿다한다

【日本式】▲男子一般部
一位=李 順 亨(京城地方專賣)
二位=早 瀨(朝鮮總督府)
三位=朴 鍾 植(京城帝大豫科)
四位=全 成 鍾(朝鮮總督府)
五位=洪 性 祐(開城)
六位=朴 在 翰(朝鮮總督府)
七位=金 甲 淳(鎭南浦無盡)
八位=文 錫 璜(開城府廳)
九位=金 基 錫(平壤地方專賣)
十位=樺 島 博(京城帝大)
十一位=門屋勝德(興南窒素會社)
十二位=國廣末男(鐘淵紡織會社)
十三位=李 東 億(朝鮮總督府)
十四位=金 相 赫(京城地方專賣)
十五位=黃 致 玉(平壤地方專賣)
十六位=瀨波熊男(鐘淵紡織會社)

▲同男子中等部
一位=崔 根 恒(京城培材高普)
二位=金 容 碩(大邱 慶 林)
三位=富 永 健(釜山第一商業)
四位=片岡榮一(京畿商業)
五位=姜 錫 榮(海州高普)
六位=金 相 勳(海州高普)
七位=李 他 官(釜山第二商業)
八位=吳 萬 根(京畿商業)

▲同女子部
一位=姜 彭 玉(同德女高出身)
二位=鄭 淑 嚴(大邱女高普)
三位=尹 貞 姬(京城保育)
四位=金 菊 培(大邱女高普)
五位=谷 淑 江(京城第二高女)
六位=李 喜 順(同德女高普)
七位=中村知江(元山高女)
八位=辛 永 初(大邱女高普)

▲【國際式】男子單式
一位=周 鍾 洪(普成專門)
二位=高 庠 鎭(〃)
三位=李 在 雨(朝鮮總督府)
四位=許 源 明(海州)

▲同男子複式
一位(菊池康夫・倉太勇)(京城齒專)
二位(上野昇一・金禎立)(仁川)

全朝鮮都市對抗蹴球大會

時日 四月十五、十六、十七의三日間
場所 京城運動場

競技及參加規定

一、競技는 朝鮮蹴球協會에서主管함
一、參加資格은 學生을 除外한 一般社會人으로하고 本大會參加申請과 同時에 朝鮮蹴球協會에 登錄케함
一、競技는『러나멘트』로行하되 順序와 時間配定은 抽籤에依하야 決定함
一、팀組織方法은 朝鮮日報支局과 朝鮮蹴球協會支部의 協議로 編成함
一、參加代表팀은 該都市居住者中에서 優秀選手만으로 一팀을 編成함
一、監督一名、主將及選手十一名、候補三名、一팀十五名의氏名、年齡、職業、位置를 明記하야 팀組織記念寫眞一枚를 添付하야 四月五日까지 朝鮮日報社運動部로 申込할것

主催 朝鮮日報社　後援 朝鮮蹴球協會

二千年前의醫聖은 이藥品의創製로再生되다

病弱體를徹底的으로强케하는近道

히포크라테스는、人體를 —이러케논앗섯다—

約二千年前사람으로 히포크라테스라는希臘人은、醫道의神으로서 今日까지、그面貌가、到處의醫院에걸려잇는것은여러분이 平素目擊하는바이다。

二千年前의醫聖은、人間의體質을四種으로 논아서、人間을날때부터神經質者、多血質者또는膽汁이豐富한體質、或은粘液이充滿한體質—라고—觀察을하엿다。

勿論、그當時의表現이므로只今여기에쓰는熟語 그대로라고는할수업스나、人體를四種으로논은先見은可驚할叡智로、二千年後의今日血液型으로、各人의 性質이 다르다는觀察과、꼭合致되는것이다。

히포크라테스는、病弱者에게嫩藥을먹엿다—

嫩藥—草木의눈으로부터 터저오는、軟한어사귀를嫩藥이라고한다。

그때의希臘人이、肉食을하엿는風習은 歷史가 明確하게 表示하고잇다。그런데 醫聖히포크라테스는 病者에對하야 回復하자면 먼저肉食을避하고 嫩藥을먹으라고 勸하엿다고합니다。히포크라테스가어떤나무、어떤풀의嫩藥이 조타고하엿는지 그記錄이업는것이 원통한일이나、嫩藥의입사귀를 집는것은 病人에게大害가잇다고하엿다는것이다。

東洋의神農—約四千年前의 사람이라고傳한다 神農도草木을 맛보아여러가지 病人을治癒하는 藥物을發見한것으로 有名한데 東西가軌를가티하는點이잇슴은 興味기픈일이다 廿世紀의科學者는 嫩藥을勸奬한 히포크라테스에對해서 研究해보아야할重大한 示唆가잇다。

ネオネオギー는、마츰내市場에나타낫다—

日本微生物研究所의 創製한ネオネオギー라는藥物은、極히强靭한生活力을가진 特殊植物의植物精을材料로해서製造한藥物이다。

이것을먹으면 確實히조흔效力이身體에미침을알수가잇다。紙上에서 賣藥式效能을羅列함은避하겟거니와 먹어보면누구라도明確하게ネオネオギー의 優秀한作用을알게된다 從來의胃腸藥、滋養藥보다도顯著히힘이强하다。

鑛物性藥物이往往히反應으로말미아마、뒤에弊害를殘存시키는일이잇슴은、周知의事實이나肉食이人體의細胞—血液을汚濁하게하는것도吾等은알어두어야한다、二千年前에、嫩藥을먹으라고외친醫聖의敎訓은 今日東洋의一角—日本國에서도 오리온의별과가티 高도 燦然한光彩를떨치고잇다 吾等은 히포크라테스의 再生을 紹介하고싶다。

植物ホルモン活用藥 ネオネオギー

婦人公論

四月「危機の思春期」特大號　特價六十錢

人生案内
★人間を造る教育…[illegible]
★まぼろしの一生…[illegible]
★新しい社會正義…河崎なつ
★心を美しくもつ事…[illegible]
★日本女性と順應性…木内キヤウ

☆春の歌
さかりの春…今井邦子
春野に想ふ…岡本かの子
春と乙女…四賀光子
春に嫁ぐ…若山喜志子

猿王の死(シートン動物物語) 内山賢二
ぺてん 豐田正子 (「綴方教室」の少女作者の新作)

輝かしい足跡を女性文化の上に殘した偉大なる三人の女性の半生

人類の文化に、歷史に、牢固と輝く三人、それは諸姉の輝かしき同性です。業苦の試錬に堪へ不屈の精神に終始する三女性の自傳は女性必讀の三篇です

私の自叙傳(米國大統領夫人として苦難の半生を此處に語る) エリノア・ルーズヴェルト
愛しき我が母(人類の恩人ラヂウム發見者キユリー夫人の生の記) イーヴ・キユーリー
女醫の足跡(初めて發表された吉岡女史の荊棘の自叙傳) 吉岡彌生
□**死の敵都脱出記**(戰亂の支那の首都より日本軍の手で救出された…百二十日間の記録である) 金子タイ子
□出征兵士の妻から妻への手紙…廣田榮子
子を捨てた母へ(放浪の子が今涙もて綴る歸らぬ母岡田嘉子のことども) 實子 岡田博
◇聲の美容…醫學博士 林義雄
長篇物語 青春航路 佐藤惣之助

背かれた子の悲劇…長谷川峻
夢と生活に破れたダンサーの手記 三條國枝
續決死從軍記 婦人公論特派記者 山岸多嘉子
かよはい女性の身で敵前數十米、たふれる同胞の屍を越えては進む、しかも命を賭した女性の勇敢な姿と、湧き絶る女性の感情。—血と涙の從軍記である。
□移民花嫁報告書…杉谷壽賀
令孃達 小島政二郎
萬葉戀歌讀本 文學博士 釋迢空
☆淡雪の如く…小野坂のり子
☆ノラにもなれず…加木愛子
☆弱き心よ…佐久みゆき
☆今は只靜に祈る…田宮せい
結ばれる人二人 結ばれぬ人二人

女性の生活と幸福を脅かす性病撲滅を語る(座談會) 厚生省 本名順平・醫學博士法學士 安田徳太郎・醫學博士 竹内茂代・婦人矯風會 久布白落實・醫學博士 大橋りゆう

沈默の貴公子は何故に泣く 小夜福子の嘆き 永戸俊雄
林長二郎にその後の心境を訊く(質問者) 入江たか子 サトウハチロー
魅力ある男優 細木香以

(特輯)**危機の思春期**
若い羽ばたき—思春期の娘に與へて—森田たま
思春期とは如何なるものか 醫學博士 竹内芳衞
處女よ徒らに憂ふるなかれ 醫學博士 赤須文男
—思春期の生理教室—

★私の青春時代★

長篇連載小說
向日葵娘 宇野千代
女軍 獅子文六
わが愛の書 細田民樹
薔薇の騎士 大佛次郎
切子の壺 長谷川時雨
石狩少女 森田たま
南五月風 林芙美子
美しき 林房雄
牧歌 川端康成

☆樂しい春の スポーツ・田鶴濱弘

新らしいお作法 文部省普通學務局長 岩松五良
□現代お作法への希望…[illegible] 家
□新時代にふさはしい日常作法口傳…指導 清水福市

學窓を巣立つ若き女性に…野上彌生子
病氣と死といつて…(女性文化月報) 谷川徹三
青年と性と戀愛と(母の教室)…京大教授 上野俊夫
歷史の塔(子供のための良書案内)…神近市子
封建時代の女子教育を省みて…山川菊榮
世界の思想宣傳戰—法學博士 米田實
不良の解剖……鈴木舜一
困苦の體驗(僕の頁)…中嶋雄作
人に好かれる若い婦人…鈴木文史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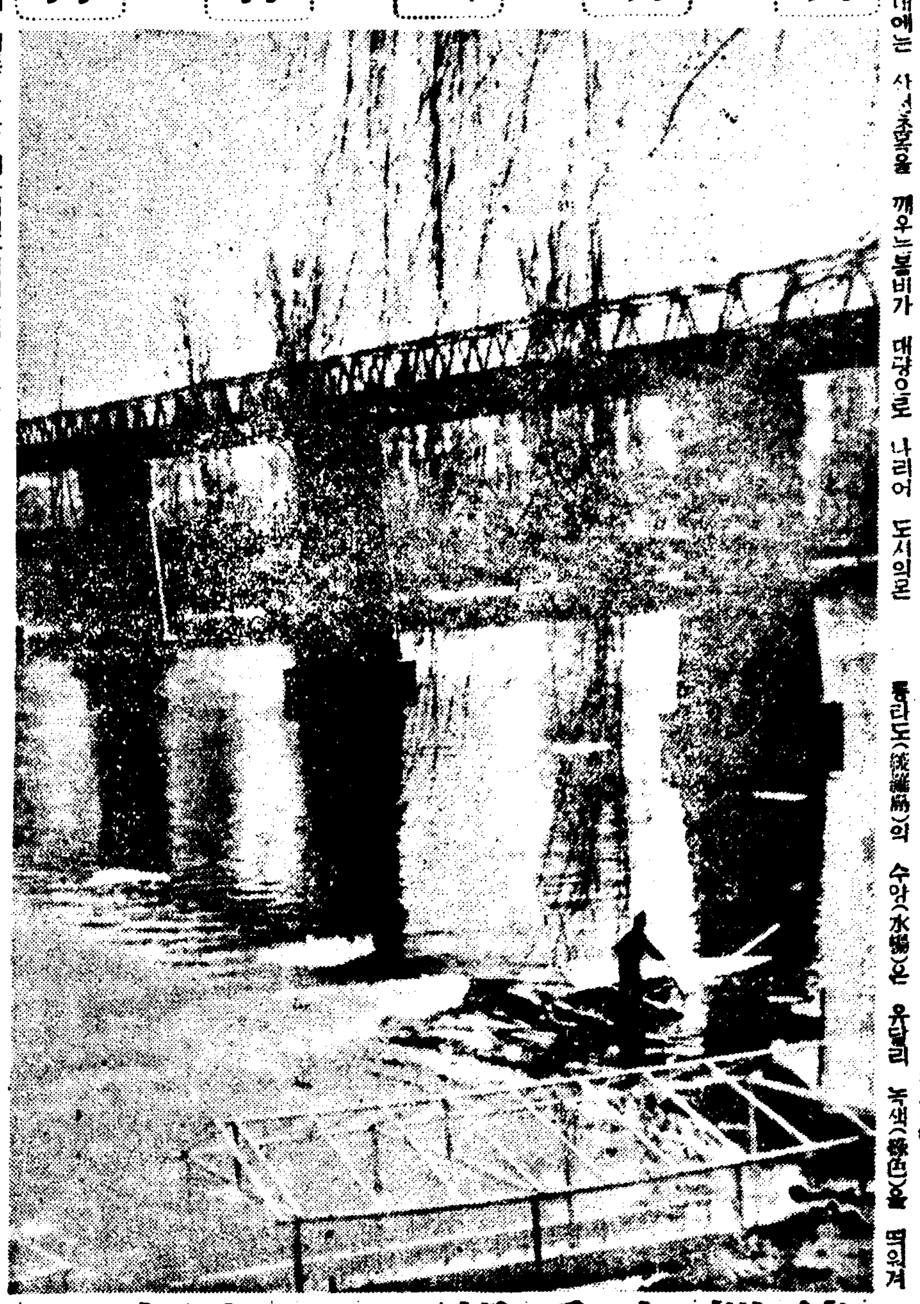
現代大學生氣質 矢田部伸
昔の學生は遊ぶには遊んだ。だが世人の十人中八九人は現代學生氣質に顔をしかめる。希望のない大學生、自分の行手を知らぬ學生氣質の浮び上る學生氣質と學生生活調査表を並べた興味ある一篇

生きんとする力 醫學博士 正木不如丘
豫防醫學とは何か 厚生省豫防局 高野六郎
自然科學の裏を覗かせたポアンカレー(科學者の道) 理學博士 寺尾新

凱旋して祖國に語る 前上海方面最高指揮官 陸軍大將 松井石根
最高指揮官として中支に三軍を指揮すること七ケ月、轉戰する我が將兵の翼となり、支那民衆よりは慈父としたはれ、支那軍隊に鬼神の名將と怖れらる今や此處に凱旋將軍として故國に歸る。將軍自ら祖國に語らんとするは何か？

「時の人」(小川平助・[illegible]・松平[illegible])足柄三郎
「物價騰貴時代の買物はどうすればよいか」…豐田野一

崩動의春霖



【平壤】 이십이일 오전 네시경부터 평양을 소식으로 서서 일대에는 사르르 초목을 깨우는 봄비가 대동강으로 나리어 도시의로 지붕 젓으면서 밤이깁도록 그대로 계속하고잇다 릉라도(綾羅島)의 수양(水楊)은 우담리 녹색(綠色)을 띄워겨울의 기픈 잠을 깨우게햇다이리하여 봄맞음은 머리에 ……의 안계(眼界)에 나타나 봄비는 바야흐로 농후해가고잇다

(寫眞은 綾羅島의 楊柳)

綾羅島垂楊에도春意!

優秀한密漁船出沒 多島海漁場攪亂

四隻을拿捕嚴重取調

【光州】 전남다도해 각어장에는 매년성어기가되면 어대로부터인지 밀어선(密漁船)이 출몰하야 금지된 구역의 어장에드러와고 기잡이을 하므로 그를엄중히취체하고잇다함은 본보에 루보하엿거니와 그와가튼 밀어선을취체하는무등환(無等丸)보다도 속력이 빨른 대규모의 어선으로 밀어을하다가 전속력을내여 어대로인지도망을 하는 판게로취체상편이나곤난을 느끼고잇다이를 밀어선은 대개가 멀리구수(九州)방면이나 전남도외에서원래한것이라는바 지난십오일 오전열시경에도 진도군평풍도(珍島郡坪風島) 부근 어장인금지구역에서 두척의 밀어선이 잇슴을 무등환(無等丸)이 순회중발견하고 정선(停船)명령을 하자 멀리 소흑산도(小黑山島)방면으로 도주하는것을 붓들어목포항(木浦港)에회선하엿스며 또는동일오후 네시경에 소흑산도(小黑山島) 부근 어장에서 밀어하고잇는 어선두척을 발견하고직시잡엇다

전기두척의 밀어선은 경북영일군창주면 구룡포(慶北迎日郡滄州面九龍浦)에사는 수산업자 하미삼랑(河彌三郞)의 소유인제일영덕환(第一榮德丸)과 제이영덕환(第二榮德丸)이라하며 소흑산도어장에서 붓들린 두척의밀어선은 하관시(下關市)에 사는 어업자인 서촌일송(西村一松)의 소유제일송환(第一松丸)제칠송환(第七松丸)으로 전부가 우수한 어선으로죄속력을내는오십오"돈"이나 되는큰어선이라한다

이와가튼 밀어선들은 전남어민의 큰두통거리라하야 엄중처벌하는동시에 금후취체를 더욱 철저히하리라한다

嶺東嶺西九郡 校長會議開催

廿三日江陵에서

【江陵】 강원도영동지방륙군과정선(旌善) 평창(平昌)등삼군내보교장회의(普校長會議)는 오는이십삼일 강릉보통학교(江普校)안에서 개최한다고한다

馬養島造船工場認可

【新浦】 공장지대로 점차비약적발전을보이고잇는 함남신포항에 명실공히 조선제일류의 대조선공장이 마양도(馬養島)에 설치키로인가가되여 신포공산업발전에 더욱박차를 가하게되엿다는 희소식!

작주 북청(北靑) 유상필(劉相弼)씨외 오인으로 허가원을제출한 신포전면 마양도낙단매립회사와 조선소급 은광공장설치문제에대하야 그후함남도토목과(土木課)에서 파장까지출장하야 현지조사를 엄밀히하엿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마츰내지난십칠일그인가가나왓다한다 조선공장설치자본금은 오십만원인바 벌서공장기지이십육만구천평백이십이평(坪)의 매립에착수하야 착착공사를진행중인데 이것이완정되는날이면 동해안어선공급에대한편리는물론 조선인기업가의자랑인만큼 각방면에 그기대가 자못크다한다

故賣한贓品도山積 벌서卅餘名檢擧

咸興府內를中心으로犯行을繼續 店員窃盜事件益擴大

【咸興】 점원과 절도범의리레도 대화정(大和町) 환중상점(丸中商店)의 상품절도사건은 그후에더욱확대되야 벌써 고매(故賣)판게자등삼십여명을 검거하고 련일취조중에잇다 점원들의 장물은 함흥시내의 소매상 사오십점에배처 팔아먹엇다고하며 그장물은 사법실에 산가티 싸혀잇스며 피해액도삼천원을 넘는다고한다 취조하는경관들도 이들의철저한 범행에는 놀래지안흘수업다고하며 이번이것을 계기로하야 시내각상점의 불량점원은 일소하야버릴생각을 가지고잇다고한다

長淵邑의 市區改正

【長淵】 황해도서해안의웅읍 장연읍(長淵邑)은 근이룡와서 약진도를 엣날부터 그길목이 노픈장연에와짐을 거듭하고잇는동 최근 십년동안에 수차에뻐처 시구개정을 단행하야스므로 신흥도시로서의 면목을 나라내이고 잇는터이나 지방발전의 진흥에따라 시구를확장시키고 그와동시에 시가지를 정리할필요가 잇스므로 장연군과 장연면당국에서는 이것을 속히실시코저하얏스나 예산관계라의 모든사정으로말미아마 다년간 현안중에나려오든바 지나간 십일오전열시부터 오후한시까지 장연면사무소에 토목청부업자들을 모히노코 입찰을 시켯는데 금춘으로 공사에 착수하리라고한다

遼陽張台子間에 進行列車에投石

時局關係로犯人嚴探

【奉天】 지난십구일오후사시십분 봉천철도국(奉天鐵道局)입전에의하면 지난십팔일오후열시삼십분경 제일이칠열차가 료양(遼陽) 장태자(張台子)간삼백삼십구「키로」부근을 진행중선로우편측으로부터 어떤괴한이 큰돌을던저엿고 천행으로 승객의부상자는 업다는데 시국이시국이니만큼어떠한 인물의소행인지몰라 현지 경찰관계에서는 범인을엄중 수사중이라고한다

학교(鐵路普校) 길차리웅(吉次利雄)교장을위시하여 산수소학교장(山平小校長)하촌창실(下村昌實)씨외 오륙명이며 따라서 전반교원에게까지 상당히 대규모의 이동이잇슬모양이다

平南初等教員 近日中大異動發表

【平壤】 평안남도에서는 학례에 따라 초등학교 교원의 이동을 근일발표하기로되엿는데 교장급에서는 평양부내 조흔보통

新入生募集試驗은 四月二十日前後

新設되는平壤第二高普

【平壤】 숭실중학(崇中)후신학교 제이고보(第二高普)와 숭의여학교(崇義)의 폐교의선물로 여자고보에 네학급을 증설하는 예산안은 전번 도회에서 기보와가티 통과되여 평남도의 학무과에서는 직시총독부에 인가수속을취하고 그인가가잇기를기다리고 잇는데그인가의 시기가 언제일지는 몰라도 인가가도착되는직시로 고시(告示)하여 직시 신입생모집시험을 실시하기로될터이다

그런데 정확한일자는 여기에서 알수업스나 전부의수속을마치고 신입생모집시험을 실시하기로 사월이십일전후로속되고잇다

南大川架橋陳情

六千戶住民生活에큰關係라고 新昌、俗厚兩面民蹶起

【咸興】 함남북청군신창면속후면(新昌俗厚面)민들은 련서로 속후면으로부터 신창항에이르는삼등도로의중간 남대천(南大川)에 새로 다리를노아달나는 진정을하여왓다

그내용은 속후와신창의두면은 북청군내에서도 가장 산업이풍부한 소위중심지대로서 이두면을 련락하고잇는 삼등도로는 극히주요성을 가지고잇는간선이다 그런대 그가운대잇는 남대천에 노은다리는 지난대정십사년도에 노은다리로서 노은지이년만에홍수로유실된뒤에는 가교(假橋)로서 련락하고잇는데 해빙(解氷) 또는 증수할때에는 전혀통행할수업스며 또한통행하다가 불의의 재변을당하는 참사가 극히빈번하야 판게 륙천여호 근사만명의 인구의생활상에 적지안흔불안을 가저오게한다 현재이판게 량면주민들은 남대천지수공사의부담금이 부과되야 경제적으로는 도저히 다리를새로노흘힘은 업고그러타고하야 다리를 하시각이라도 지연할수는업스니 원컨대 당국에서 다수주민을위하야 또산업의발전을위하야 급속히다리를 노아달라는것이다

地主와借地人招集 判事가和解工作

金成社家屋撤去問題後聞

【元山】 기보=원산부정오정목에서 명석동광석동에뻐친 이만평에가까운 대지(垈地)를 소유하고잇는 시내본정오정목 금성사(金成社)에서는 얼마전 전기토지를빌어집을 짓고사는 오륙백호의차지인 가운데에서 시내광석동 김리석(金利錫) 김학기(金鶴基) 안용철(安容喆)등 삼씨에게 각각 집을헐어가라는 철거청구소송을 원산지방법원지청에제기하얏다함은 기보하얏거니와 이 철거소송은 직접간접으로 이여의오륙백호 차지인에게 영향할바큰것을들어 법정도상에잇는원산사회에주는 충동도커서 일반의관심이 자못기피가고잇는바 재판소에서도이러한사실을짐작하얏는지 회하고 오는사월칠일경 다시모혀서 화해를하기로하얏다

高木部隊長 平壤에凱旋

【平壤】 일지사변발발이래 북지에전전팔개월 세계전사상에 찬연한 위업의 성취를위하여 칠십여회 혁혁한무훈을 세우고개선한 고목(高木) 부대장은 이십일일아침 평양에개선하여 그날일곱시부터 공회당(公會堂)에서 실전강연회(講演會)에 참석하엿는데 개선장군을 환영하는 군중으로 연두와 공회당은 대혼잡을 일우웟섯다

이십이일오후네시부터는 신공회당에서 고목부대장의 대환영연이 열리엇섯는데 관민천여명이참집하여 대성황을 이루엇다

白衣勇士 慰問獻金

【大阪】 지난 십팔일대판부 중진경찰서(大阪府中津警察署)관내에사는 조선사람들이 협력하야 백의용사위문금으로 금이십칠원을 모집하여 대표김석이(金碩伊)씨가 동서특고내선계에 가지고가서 헌금을위탁하엿다는바 씨명은 다음과갓다

▲金六圓 林春成 ▲金五圓 林春三 ▲金二圓 金世淳 ▲金一圓式 金碩伊 李有鎬 裴元基 林千五 崔相位 康應世 金鎬義 李瑢雨 林千一 ▲金五十錢式 吳維燮 具啟觀 安龍伊 郭啟五 姜義香 林逢春 韓基華 姜英仁 李鶴寅 丁英燮

海州中學校에 二百圓을寄附

海州尹女史美擧

【海州】 해주읍북행정(海州邑北幸町)삼백사번지 윤비곡(尹飛谷)이라는 여사는 지난십구일 금이백원을 봉투에다 너가지고 황해도 학무과장을 방문하고 새로설립되는 해주중학교(海州中學校)에 써달라고 내노앗는데 일반은 여사의 미거에 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勞働力은不足해도 勞賃은低落傾向

物價高騰의正反對로

【平壤】 각종물가는 천정을모르고 기어올라가고잇는이때에 이와는 정반대로 로임(勞賃)은실제로 떠러진다는 기현상을 보히고잇서 근로계급의 생활상위협이 가중되고잇다 모당국에서는 로동자의 취체와 사상취체자료를 만들고저평안남도내에서 로동자 백명이상을 사용하는 각공장 광산토목건축공사장의 로동자금을 조사한결과 여기에해당한 공장、광산、토목건축장은 현재 팔십사개처로 여기에서 로동하는 로동자수는 수만에 달하는터이나 아직로동력이 부족을 고하는이때에 로임은일년전부터 겨우오부(五分)가 올라감에 대하여물가는 최소한도 이、삼할의등귀를보아 결국로임은 실질적으로 떠러지고잇다는 결론을 지엇스므로 아프로 어방면에 적극간섭을하여 로동자우대책도 강구하기로될모양이다

密航居間團逮捕

五百餘名에萬圓騙取

【釜山】 부산수상경찰서에서는 부내에 남녀유명으로 조직된 밀항뿌로-커단이 잠복하여잇다는 것을 탐지하고 지난 십팔일밤에 동서공등계급사범계의형사를 총동원하여가지고 자동차를모라 부내초량정(草梁町)모처에 출동하야 대년두끄떼 우인도(禹仁道)(三七) 김명옥(金明玉) 림순이(林順伊) 김원태(金元泰) 김두문(金斗文)등 다섯명을검거하야다가 방금엄중취조중인데 이제그내용을 듯건데 그들은 소화팔년경부터『현재 도주하고업는』리경순(李敬俊)(三一)이를 단장으로한 일당뿌로-커단을 조직하고부산을 중심으로 김해(金海) 동래(東萊) 양산(梁山) 울산(蔚山) 밀양(密陽) 통영(統營)등 유개군을도라다니면서 도항증명서를 엇지못하야 일본내지에 도항하지못하고잇는 사람들을 가진감언이설로서 약오백여명에게 일만여원을 편취한것이라고한다 그리고 동서에서는 단장인 리경순의행방을수사중이라한다

鳳山郡雙山面에 膓窒扶斯病發生

【沙里院】 요사이봉산군 쌍산면화양리(雙山面花陽里)모의집에병자가 생기엿스므로 진단을한결과장질부사(膓窒扶斯)로 판명되엿는데 조사한결과 그부근에환자수가벌서 열두명이나 되며판게당국에서는 당황하야 예방에전력을다하고 잇스나 아프로대단히염려된다고한다 생명이위독상태에잇다고한다

碧養公普校 學年延長을認可

【通川】 통천군벽양면 공립보통학교는 현재이 사학년제도이므로 아동의취학상대단히불편이 잇스므로 유감으로 여기던면민은 벌서부터 학년연장기금까지 모집하야노코 맹렬히 운동하야오던바 금번인가가 되엿다는데 이로써 벽양면민의 크나큰 숙망은달성되엿다고한다

各學校合格者

清州商校

明洋洙 馬興植 孫興雲 申亮秀
李元魯 朴芝用 安在天 元鍾哲
李鼎九 朴門甲 金翼洛 金東洙
金完烈 辛紋滄 金永玉 朴祇斗
朴牧夏 丁奎混 趙炳文 尹應相
李端雨 閔在基 李亭根
張基喆 趙誠達 朴興奎 朴燕哲
金世鄉 閔昌基 林昌圭 吳景錫
宋在遠 李在殷 李海榮 權泰翊
方振玉 文天鉉 金龍泰 李根英
白海俊 閔泰植 姜相勳 具琦會
安秉泰 朴南烈 朴明夏 南相榮
龍洗九 金仲九 張壽千 金敎基
金在雄 梁在永 鄭平相 李榮植
山谷雄四郎 吉田正男 以上五十八名

尚州農蠶

盧彰夏 文鍾夏 鄭雲皓 姜外基
松浦正夫 田代樣 李圭鎬 尹夏柄
許錦 權泰石 趙鏞甲 金石鍛
金繇化 張谷鎭 李在鳳 金永煥
金舜河 尹赫燮 李閏春 李鍾萬
金鶴東 權錫駿 鄭東海 劉遠鋼
安靖振 金東煥 閔炳祚 金龍河
張師元 李鍾根 李鍾龍 申泰守
姜基鎬 金漏祚 劉應鋼 韓慶洙
朴斗一 孫有善 李永載 殷鍾榛
朴大寧 金洪允 朴駿武 朴容明
李明熏 金相龍 金學悅 李正俊
辛康德 金成載

春川農校

米田功 內田六郎 朴昌鎬 高在鵬
尹辛洛 李秀源 金邊玉 李基一
金鍾禮 李敏翔 辛在萬 韓相倫
宋寅燮 權明鶴 李東祿 徐寬鉉
高家煥 崔基成 金祐根 徐廷泰
趙東現 鄭相殷 李千萬 李聖求
李揆白 金南旭 朴永祿 嚴應燮
權商動 高三圭 李相元 金圭善
朴暢煥 申泳禹 李漢奉 慶寬稼
朴東根 張道源 朴準景 李時雨
洪在日 鄭雨均 李永雨 姜永鎬
朴性浩 安完柱 金永斗 宋漢植
申顯鎬 劉錫熊 韓辛錫 許烈
鄭東浣 申海均 陳成鍵 金健鉉
趙正石 李鍾寶 具貞植 韓昇宰
洪炸麟 金鴻培 李喆雨 崔時衡
金東烈 南相信 金基炯 鄭泰俊

寧邊農校

金正洙 張炳敦 沈秉澤 李文基
金容尙 朴仁錫 高甲鎭 金容韶
金俊永 金明勳 洪晩植 嚴毅
金東祚 李百淳 金庚祚 元觀相
趙晃九 徐明澤 安鳳基 金重來
洪淳郁 南相錫 李英植 金祚植
洪根植 金鎭烈 李源鎬 嚴主大
金濟星 金東會 權壽昶 李基春
朱相健 金伯治 金應濱 崔文旭
康慶熙 康用涉 申在鉉
金河杰 金昌賢 金秉道 李容珍
鄭鳳涵 金麟河 金錫軾 鄭炳彦
崔乙星 李明哲 康士奎 崔基鳳
金湧伯 李弘黎 李明浩 金元白
趙潤一 金鼎允 姜允珠 許南杰
文元輔 姜興周 李鳳吉 鄭漢淑

馬山中學校

李璨鉦 金河明 金義輝 李仁奎
宋錫濟 李福華 金錫煥 李承鎬
金澄鳳 金俊貞 梁秉琛 梁基貞
金相甲 張敦濟 金鎭弘 以上四
十七名
金榮柱 洪鍾洛 余忠圭 安達洙
姜永圭 安在贊 宋谷浩 高昌烈
李舜宰 趙覲來 權五明 千章烈
李相甲 孫廷柱 文玉均 金鍾斯
朴允鎬 金孟坤 金相鎬 宋民植
河永基 徐正斗 李永敏 趙性度
金尙壽 南基沅 黃學能 文益哲
孔宇烈 趙鴻來 安駿相 李鳳來
李鍾煥 姜乙成 沈貞燮 李成鳳
鄭京奎 權泰模 盧鎬 金喆坤
朴任旋

長篇小說 濁流 【156】

蔡萬植 作 / 鄭玄雄 畵

食慾의方法論(13)

승재가 색주갓집『견넉』을 운경이다。

술이 얼근해가는 동행 약제사는 저혼자 흥이나서 승재의 몫으로 돌아온 여자까지 몰나차지를 하고안저 재미를본다。

승재는 술은 커녕, 달른 안주짜발도 매독이 무서워서 손도 대려고 안햇나。

여자들의 행동은 상상이상으로 추악하여 외던이 동물이하로 보엿다。

약제사는 두여자를 양편에다 끼고 안저서 한손으로는 유방을 떡 주물으놋이고 한손으로는……。

그래도 두여자는 어게 몸새기나 만지는것처럼 심상 심상이라니 도리어 시시덕거리면서 조하한다。

승재는 차마 해괴해서 못본체 외면을 하고안젓나。

『여보、난상?… 난상!』

약제사는 지처은시 이번에는 여자하나를 끼고 멍굴나가 소리소리 승재를 불으면서 게심치레- 풀린 눈으로 연신 눈짓을한다。그래도 승재가 못들은체 하고잇스니까

『…아、난상우 좀각 아니우? 자-갑시다、자구…。아인(一圓)이면 되나 다 당어께…』

하고 까노코 떠들어대면서 일변 짝 못차즌 다른 한여자더러 눈을 끔적끔적한다。

그여자는 알어듯고 승재게로 달려들더니 몸을 얼사안고 나둥거린다。승재는 질겁을해서 버둥군다。

『이양반이 분명 내신가봐?』

여자는 조롱을 하다가 어데 좀……。승재는 사정업시 여자를 떠다밀치고 벌떡이러서서 의관을 찻는다。

『가 가만、잠깐만、난상 난상 정말재미나는 구경을…』

약제사가 비틀거리고 일어서더니 지갑속에서 오십전짜리를 한푼 꺼내들고는 승재의 목시는데자와 수작이다。

『너 이거 알지?』

『피이! 오십전!』

『애、서양서는 금전을 쓴다더라마는、조선이야 어데 금전이잇니? 그러니까 아쉰대루 이놈 은전으로、응?』

『오십전 바라구는 못하네』

『그럼 이놈만……일원 한장 더준다!』

『정말?』

『네한테 거짓말 하겟니? 염려말구서……기나 해라。아-니 그러치만 아래루려는 다……한다? 응?』

『그야 여부가 잇수!』

『사아、난상 구경하시우。이건 서양이나 가예지 보는거티우 그리구 더 볼나가……

……가요 네?』

약제사는 일변 서냥퍽 우에다가 오십전짜리 은전을 올려노코 물러안고 재수를 한다는 여자는 갑작히 치마부터……。

승재는 누가 잡을 사이도업이 문을 밧차고 나와서 신발도 신는대 마는대 거리로 뛰어나섯다。그는 은전은……입으로 무슨 재수를 부리는줄난 알고서 잡잡코 잇섯든것이다。모자도 못쓰고 외투도 못납고 혼자 떨면서 돌아오는 승재는 속이 메시꺼워 면번이고 욕질이 나는것을 겨우 참엇다

이것이 작년겨울 어느날 밤에 약제사가 승재의 사처로 놀러와서는 색씨를 잇는데를 구경시켜주마 꾀이는바람에 승재는 대체 어떠케 생긴 곳이며 생활과 풍도는 어떠한고하는 호기심으로 솔면이 딸어왓다가혼떰이 나본 경험이다。

승재는 전연 상상도 못한것이어서 어쩌면 사람이—더욱이 여자가 그대두록 타락이 될까부냐 여간만 분개한게 아니다 그는 작년 겨울의 이 기억을 되집으면서 인동 색주갓집 모롤부은 계복동 아랫비탈 그중의 개명옥(開明屋)이라는 집으로시방 명님이를차저온 길이다。

오늘 야학에서 일직여섯시까지 시간을맞내고 교원두사람더러내일 밤차루 떠날뜻하다는작별을한뒤에 일러루인해 차저와든것이다。

아직해도 지기전이라 손님은 들지안헛고 이방저방 색씨들이 둘씩셋씩 놀비하니 둘어누어코 노래도 불으고 누구는 단조끗바람으로 우홍을 버서제치고서 세수를 하느라 시이시한다。

끼웃끼웃 내어다보는 색씨들이、죄다 얼골이 삐둘어저보이기도하고 몰때기나 이마빼이나 코허리가 석어 돌어가는 것을 분으로 계칠을 햇거니 십기도 햇다。

승재는 그의말대루하면 이런곳은 인류가 환장을해서 동물로 역행하는 구렁창이든 것이다。환장을안코서야 결단코 그러케 파렴치가 될 이치는 업다햇다。

결국 그러니까 승재는 제소위『환장을해서 동물로 역행을 하는』여자들을 그허물만 전혀 그네들 자신에 잇는줄만 알고잇는것이다。그러지라 동정하고시픈 생각보다는 더럽다고 침을 배앗고십다。

肺患必讀

肺病肋膜患者에게警告

흔이『肺病患이라고하면 천당死刑宣告나 바든것처럼 悲觀하고 藥과注射와器械만으로 病을治療할려고합니다 그들을라서 無効한 藥과器械를 달고 効果疑問의 療法을하고 여러가지手段과 實傳을 하여서 病人을 꾀이는 商人이 만습니다。藥장사가아모리 그럴듯한 文句도 廣告를잘지라도 名士大家가 아모리 奇效를 證明할지라도 아서는안됩니다。結核菌을 죽이고 肺病을 一擧에 全治하는藥과 注射는 人類史上또地球上어데고 發見되고잇지안습니다

그릇된治療法

肺病은 웨낫기어려운가? 그것은諸氏의治療方法이 잘못된까닭입니다。肺病은藥物萬能의迷夢을 覺醒시키고 大自然의품속에 안기여 精神力을確立하고 病苦를무엇이나 내病은꼭낫는다는信念이야말로 肺患征服의 正當한길이라고 할수잇습니다。새작이을는길、淸淨한물、깨끗한空氣、慈愛에넘치는해빛、自然의藥草木 이大自然中에肺病者를 救하는慈愛의손이벌리고잇습니다。

肺病은 이自然으로도라가면나을니다 肺病이안낫는다고하는사람은 大自然의恩澤을모르는 科學萬能者나 西洋文明心醉者입니다

正當한治療의道

肺患諸氏여 당신은지금어떠케 病臟와싸울고잇습니까 大自然의 攝理에背反된 그릇된療法으로病勢를惡化를 限歡하고잇지안습니까 기침은안납니까 가슴은압호지안습니까 喀痰은업습니까……肺患諸氏여 당신은日光療法을잘못하고잇지안습니까?……물과親하고잇지안습니까?……밤낫으로惡을여러노코잇습니까?……自然을妨害하는藥과器械를使用하고잇지안습니까?……松永佛骨師著『肺病治療의原理』는同師가病苦十年의辛苦에서 버서난體驗으로 病者에게 드리는小冊子로서 이야말로肺患征服의正當한指針입니다。이指導를밧고肺病肋膜의病苦를버서나고 健康을禮讚하는사람이 얼마나만흔지모릅니다 諸氏도이福音을 엇고 救援의光明에기뻐하는몸이 되십시요。

無代進呈

肺病治療의原理

(目錄)

●結核菌과그傳染 ○結核菌의保有者 ●結核菌의天然免疫 ○웨肺病이되엿든가 ●釋迦의金言 ○肺病은반다시낫는다 ●結核菌을죽이는藥物이잇는가 ○大自然의품속으로 ●治療의原則 ○信仰에對하야 ●藥의藥用方法 ○水療法의方法 ●日光과空氣 ○安靜療法 ●榮養療法에對하야 ○喀血의原因과止血法 ●發熱의原因과解熱法 ○鎭咳法과祛痰法 ●盜汗과그療法 ○不眠과安眠法 ●泄瀉와便秘療法 ○脈搏에對하야 ●肺病은全身病이다 ○療養生活者의注意 ●肺病과和漢藥 ○누구나採取할수잇는藥草 ●家庭에常備하는藥草 ○野菜와果物의藥効 —以上—

上記內容의『肺患治療指導書』와藥草療法을 公開한『光明のあなたへ』의 二冊을 只今 곳 朝鮮日報에서 보앗다 冊보내다고써서 左記로葉書를보내면肺患退治의 弘願에依하야 無代進呈합

大阪府布施市 功德山 德林寺 電話布施二四五·振替大阪一三三五

神經衰弱과 精力增進

◆神經衰弱과 精力增進에는 副作用잇는 一時的刺戟藥은危險합니다 여기에汎부러傳하는 强腦强性藥十數種配合한 漢方良藥!!天光!!은絶對로 副作用의念慮가업서서完全히질드릅니다 神經衰弱과 精力減退老衰等에人生을 咀呪하는분 한번 그効果를試驗하심이조흘니다

◆이廣告를 切取하야 切手五十錢을 封入하고 申込하는분에限하야 實驗用으로서 試藥三○錠(金一圓二十錢分)과 療養書를送呈합니다(一人一回限)

大阪市東成區下味原町 光明院

特に頰紅式に固形された新工夫の重寶な粉白粉! 從來のコナの樣に飛散せず・お召物を汚しませんから

固形 タンゴ・ドーラン (탕고도랑)

旅行・ピクニック・ツンク・外出などのハンドバック化粧にはこれが一等! 優美ヒロードパフ付 三〇錢 五〇錢 七色あり